<u>제 10 과: 요한계시록 22 장 8-21 절</u>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시작기도: 빛과 생명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눈물을 닦으실 당신의 사역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 장 8-21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톰 라이트의 책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 나는 회랑에 서서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 나는 아침 공기 속에서 선명하게 들리는 열 개의 종소리를 제각각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차 순서가 변하고 고대 석조 주랑에 메아리가 풍성해지면서 종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았다. 때 묻지 않은 장엄한 고대의 소리가 메아리를 이루면서 오랜 과거의 추억과 앞으로 올 미래의 심상을 일깨웠다. 그러다가 풍성하게 뒤섞이는 소리 밖으로 저음 두세 개가 계속 끼어들며, 그때마다 끊임없이 변하는 패턴을 만들어 냈다. 딩—딩—**딩**, 딩…딩…**딩**. 저음은 전체 음악의 일부였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주목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귀담아 들어라. 우리는 당신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깨어 있으라.
>
> 이 가장 놀라운 책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 이와 비슷한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 책을 수박 겉핥 듯 지나왔지만, 우리가 빨리 지나는 동안 그 깊이를 살짝 맛보았다. 우선 우리는 음을 대부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고, 메아리가 풍성해지고, 연속된 사건—편지, 봉인, 나팔과 대접, 또 그와 함께 등장했던 모든 것—이 우리의 기억에서 하나로 합쳐졌을 것이다. 곧 우리에게 역사의 첫 새벽과 가장 오래된 성경을 지시하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표지판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미래에 올 일을 계속 지시하는 때 묻지 않은 장엄한 고대의 소리다. 그런데 이렇듯 풍성하게 뒤섞이는 환상과 이미지 밖으로, 이제 이미 지나간 모든 것으로부터 다채롭게 등장하는 두드러진 두세 음은 음악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말해 준다. 주목하라. 이 말씀을 지키라.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
> 곧 간다! 이것은 요한이 밧모를 보기 전부터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 말라기는 400 년 전 권태에 빠진 무심한 제사장에게 "너희가 찾는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오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에스겔은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운명에 맡기고 버리시는 장면을 묘사했지만 (겔 10:18-19; 11:22-23), 그는 또한 성전이 합당하게 회복된 뒤에 그분이 돌아오실 것을 약속했다 (43:1-5). 그렇지만 다음 400 년 동안 어느 때에도 에스겔이 염두에 두었던 그런 환상을 전하거나, 혹은 출애굽기 40 장이나 이사야 6 장처럼 성전 안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에 상응하는 경험을 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곧 오실 것이다. 그분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소망이 회복된 성전에 대한 소망의 중심에 있었고, 회복된 성전에 대한 소망은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이 대한 소망의 중심에 있었다. 소망 안에 있는 소망 안에 있는 소망. 분명, 그분이 곧 오신다 (202-204)!

또 종소리는 혀를 얻어 그분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찬양과 초대의 소리를 울린다. 물로 나오라. 아직 시간이 있다. 와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라. 요한의 독자들은 거리의 이웃에게서 차갑고 적대적인 시선과 당국자에게 알리겠다는 위협 이외에 다른 것을 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용과 괴물, 거짓 예언자의 현재 통치를 너무 깊이 인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듭된 관대한 초대를 이웃이게 내놓는 대신 도피하여 구출되기만을 바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광대하고 그분의 초대는 세상만큼 폭넓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호소 없이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 또 다른 모든 것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만이 거부할 것이다(15 절).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해당한 어린양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영광스럽게 성취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해서 목마를 사람을 전부 초대하여 환영하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부어 주실 것이다.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 이 예언. 이 책. 곧 간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이 편지(계시록은 항상 예언이요 계시일 뿐만 아니라 편지였다)는 당연히 마무리 인사로 마친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21 절). 관례를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인사말에 이제 이 책 전체의 무게가 실린다. 이 인사말은 수천 가지 ‘은혜’의 이미지로 자욱하고, 황제의 코앞에서 고백된 ‘주’라는 단어의 위력이 배어 있고, 여전히 열려 있는 초대 문구 “여러분 모두”로 반짝이고, 무엇보다 한 이름으로 향기롭다. 곧 이제 만물 위에 높아지신 이름, 죽임 당한 어린양의 이름, 우리가 사랑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분의 이름이다. 이 책은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께 대한 경배 행위였다. 이 말씀. 이 책. 이 예언.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곧 간다. 이 예수님이 (206-207).

함께 토론해 볼 주제: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오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교회들과 성도들이 즐겨했던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2.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까?

3.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합니까?

4.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리더: 가능하다면 이 질문의 답변들을 기록하여 campusministries@calvin.edu 로 보내주십시오.)

마침기도:

예수님, 당신이 요한을 통해 주신 가르침을 인하여 감사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한 주, 한 주 공부하는 중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도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일하심을 인해 감사 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